



energy snapshot

Analyst. 손 지 우 / 3773-8827, jwshon@sk.com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미국과 사우디의 심기를 건드리다

- ▶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담보로 발행한 가상화폐 '페트로'는, ① 미국의 오일달러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 ② 원유 저가판매는 OPEC 수장 사우디 의도에 반하는 것임. 또 다른 석유시장 내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파악됨

베네수엘라, "우리 가상화폐로 결제 시 원유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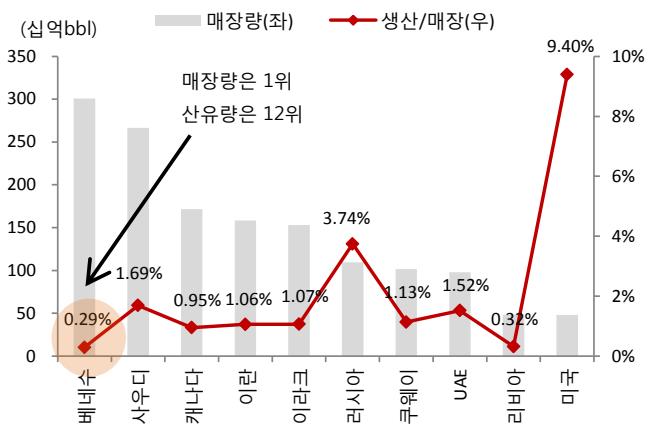
베네수엘라, 페트로 결제시 对인도 원유 수출대금 30% 할인

모히트 칼라 코인시큐어 최고경영자는 (중략)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페트로로 결제할 경우 원유 수출대금에 30% 이상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페트로는 국가가 발행하는 세계 최초 가상화폐로, 베네수엘라 석유매장량을 담보로 발행된다. 베네수엘라가 3000억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만큼 페트로를 두고 가장 안전한 가상화폐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2월20일 사전판매에 들어간 페트로는 이미 38억달러(약 4조680억원)를 조달했다. 사전판매 기간 127개 이상 국가에서 관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파이낸셜뉴스(2018년 5월 1일), SK증권

-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베네수엘라가 자국 가상화폐인 '페트로'로 결제할 경우 원유를 30% 할인 판매하겠다 발표했네요
- '페트로'는 국가가 발행한 세계 최초 가상화폐로서, 그들의 석유 매장량을 담보로 발행이 됩니다. 단가는 배럴 당 \$60 수준이고, 지난 2월 20일에 사전 판매에 들어간 바 있었습니다
- 일단 베네수엘라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들은 현재 '숙적' 미국에 의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거의 디폴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죠
- 그렇기에 세계 1위 석유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 개발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reverse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어떻게든 자금을 모집해보려는 의도를 보였다 판단됩니다. 외환보유고가 풍부한 인도는 적합한 파트너죠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매장량 불구하고, 산유량 12위에 불과함



자료 : BP, SK증권

- 다만 뉴스를 보고 2가지 생각이 드네요. 미국-사우디의 오일달러 (Oil-Dollar) 헤게모니는 70년대 이후 화폐경제의 큰 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건든 국가들은 무사하지 못했는데, 베네수엘라가 가뜩이나 최근 불붙은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닐까요?
- 또 한 가지. 베네수엘라도 비록 좌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OPEC의 일원인데, 약속을 깨고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한다면 OPEC이 가만히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OPEC의 수장 사우디는 아람코 IPO를 앞두고 유가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페트로'가 성공할 확률은 현재 높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원유를 담보로 했다는 국가의 '신용(credit)'에 대해서 대다수 외신들이 많은 의문감을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 하지만 미국/사우디의 심기를 건드릴 소식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왠지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의 발발로 보이네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